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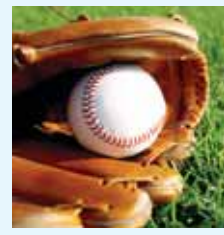


지난해 열린 제 1회 무등기 사회인 야구대회 천왕리그 지누스포츠와 디스커스의 경기 장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회인야구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광주일보 주최 제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16일 OB구장서 개막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가을 잔치’가 시작된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가 오는 16일 OB구장에서 개막한다. 대회는 무등경기장, OB구장 등에서 11월18일까지 계속되며 천왕·지왕·인왕·전남리그에 총 47개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다투게 된다. 대회 첫날에는 OB구장에서 지왕리그 4경기가 펼쳐진다. 16일 개막식에 앞서 오전 7시 밀레니얼과 삼지토간이 대회 첫 경기를 치른다. 오후 12시에는 전남대 OB와 롤가이스가 맞붙는다. ‘디펜딩 챔피언’ 세한기업재규어스는 오후 2시 ‘전통의 강호’ 백구클럽을 상대로 대회 2연패 도전에 나선다. 광남베스트와 담양에는 오후 4시 맞대결을 벌인다.



천왕·지왕·인왕·전남리그 47개팀 토너먼트 방식 불꽃 튀는 대결 사회인야구 최고 권위의 ‘가을 잔치’

지왕·인왕·전남리그에는 선수출신이 등록할 수 없지만 천왕리그에는 투포수를 제외한 포지션에 2명의 선수출신이 출전할 수 있다. 각 리그의 우승상금은 50만원으로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우승메달도 수여된다. 준우승팀에게는 30만원의 상금, 트로피, 준우승메달이 주어진다. 공동 3위팀에게는 메달과 시합구 1타가 부상으로 증정된다.

개인 시상도 이뤄진다. 우승팀 감독과 최우수선수에게는 트로피와 10만원, 우수선수에게는 트로피와 5만원이 주어진다. 심판상 수상자에게도 트로피와 10만원의 상금이 돌아간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시야구협회와 광주시생활체육회야구협회가 주관하며, 광주시생활체육회·전남도 생활체육회·KIA 타이거즈가 후원한다.

◇제 2회 무등기 사회인야구 참가팀
▲천왕리그(7개팀) : 자연환경, 허버 베이스볼, 데인저스, 워리어스 1부, 준모터스 페가수스, 팔도참오리, 푸른바다
▲지왕리그(16개팀) : 밀레니얼, 삼지토간, 전남대 OB, 롤가이스, 세한기업 재규어스, 백구클럽, 광남 베스트, 담양에, 제일공조, 우리필프, 라온베이스볼, 효인요양병원 헬리우스, 에이스, 디스커스, 상무 카오디오, 다인 퓨리어스
▲인왕리그(16개팀) : 광주 레전드, 아도니스, 삼호 의료재단, 버팔로스, 판13, 무한질주, 포프리, SC 나이트, 패밀리 야구단, 불투삭스, 청연한방병원 야구단, 지스트 드래곤스, 워리어스 3부, 신야구단, 나이너스, 승천 드래곤스
▲전남리그(8개팀) : 화순 NH자이언츠, 장성 포비스, 장성랜드 포스, 순창 레드퍼프스, 화순 에슬레틱스, 곡성 금호 허리케인, 화순 야구파크, 영광 YG프라이프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바다 F1 대회’ 목포서 열린다



시속 120km 제트스키 경주



‘모터보트의 황제’ K-T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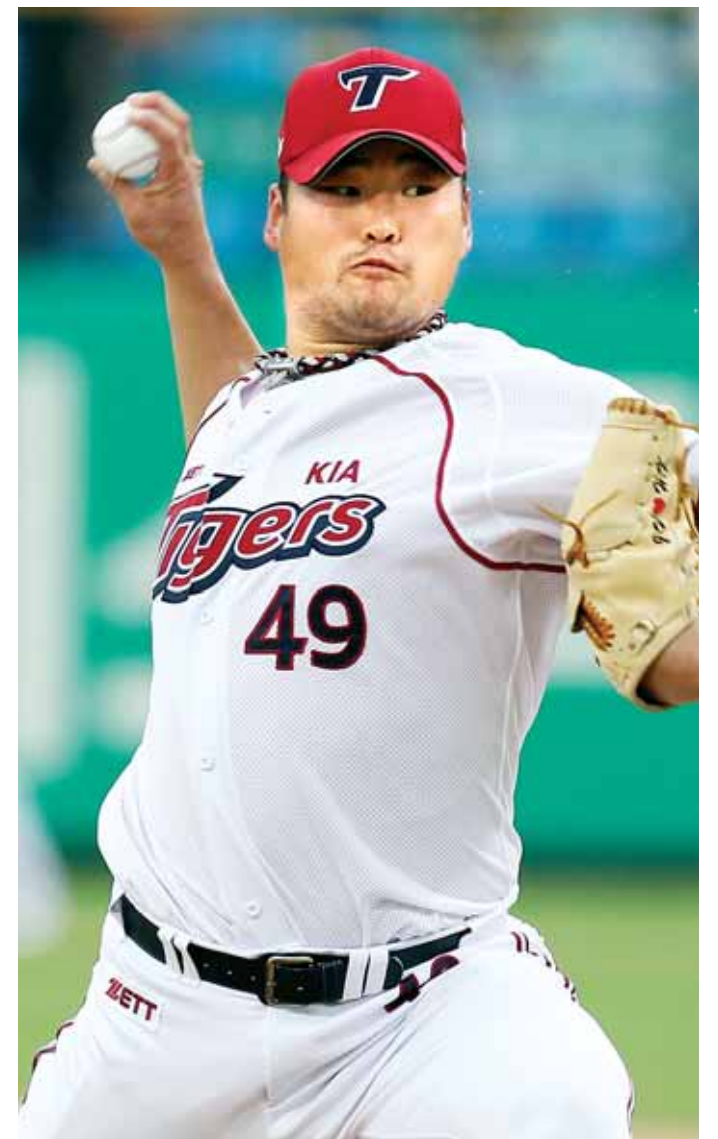
프리스타일 묘기

시속 130km ‘스피드 대결’ 23일 목포 평화광장 해상 전남 국제 파워보트 대회 6개국 선수 150여명 참가

바다에서 해상 F1대회가 열린다. 해양레저도시 목포를 알리는 ‘2012 그린 전남 국제 파워보트대회’가 23일 목포 평화광장 해상서 개최된다. 오전 10시 태권무와 밸리댄스의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개회식이 진행되며 11시부터 K-T1 국제경기와 제트스키로 유명한 수상오토바이 국내·국제 경기가 잇따라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스페인·에스토니아 등 총 6개국 1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모터보트의 황제, 바다 위의 F1’이라 불리는 K-T1은 유럽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신개념 보트로서 가장 한국형에 가깝고 출발 후 4초 내에 130km/hr에 도달하는 빠른 스피드를 자랑한다. 무게 426kg, 길이 5m30cm 배기량은 중형 승용차 급인 2500cc로 국내에는 단 2대밖에 없다. 또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는 최고 시속 120km로 안정성이 우수해 국내에만 3만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K-T1과 플라이보드, 수상오토바이 프리스타일 묘기 시범도 펼쳐진다. 여수 엑스포 인기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플라이 보드’는 약 100마력의 힘으로 물을 흡입해 생긴 힘으로 물 위를 자유자재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신종 해양레포츠다. 또 수중 다이빙, 급회전, 역 질주, 점프 등 다양한 테크닉을 선보이는 ‘프리스타일’ 묘기 시범은 관광객들에게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국제 파워보트대회가 해양레포츠 중심도시인 목포에서 개최된 만큼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윤석민



김진우

윤석민 고속 슬라이더·김진우 폭포수 커브 즐기며

KIA ‘4강 스트레스’ 날려보자

오늘 광주서 롯데전 더블헤더 ... 나란히 선발 출전



무등경기장에 폭포수 커브와 고속 슬라이더가 연달아 쏟아진다. KIA 타이거즈가 14일 무등경기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더블헤더를 갖는다. 윤석민이 선발로 예정됐던 13일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지난 6일 발표된 잔여 경기 시행 세칙에 따라 더블헤더가 열리게 됐다. 지난 2006년 이후 6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더블헤더다. 당시 상대도 롯데였다. 2006년 10월1일 KIA는 롯데와 홈에서 두 경기를

동시에 치렀다. 가장 최근에는 2009년 5월17일 문학에서 SK와 더블헤더를 가졌다. 14일 경기에는 공교롭게도 올 시즌 비를 몰고 다녔던 김진우, 윤석민 두 투수가 나란히 마운드에 오른다. 올 시즌 선발 등판이 9번이나 비로 연기됐던 김진우가 더블헤더 1차전 선발로 출격한다. ‘폭포수 커브’를 앞세워 제 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김진우는 송승준을 상대로 시즌 8승에 도전한다. ‘고속 슬라이더’를 장착한 윤석민은 2차전

선발로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7월10·11일 롯데전 등판이 이를 연속 비로 밀리는 등 윤석민도 올 시즌 7승의 등판이 우천취소됐다. 윤석민은 유병을 상대로 시즌 9번째 승리를 노린다. 한편 더블헤더 첫 경기는 오후 3시에 열린다. 첫 경기는 연장전 없이 9회까지 진행되며 두 번째 경기는 1차전이 끝난 뒤 20분 뒤에 시작된다. 더블헤더 경기의 입장권은 기존 금액의 1.5배 가격에 판매된다. 2차전 경기만 관람할 경우 기존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입장할 수 있다. 사전 예매를 한 경우에는 2차전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